



# ‘방콕둥이’ 이정후...돌격! 금메달 앞으로

(1998년생)



“나이는 막내! 타순은 맨 앞!” 이정후는 지난해 프로에 데뷔한 프로 2년차이자 만 20세다. 하지만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야구 대표팀의 리드오프를 맡는다. 공격 침범으로서 타선의 활로를 뚫는 중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스포츠동아DB

‘6전 전승 금’ 방콕AG 열린 해 태어나 프로 2년차, 리그 정상급 타자로 성장 손아섭과 테이블세터 호흡 활약 기대



1998년 12월 16일 한국야구는 아시안게임(AG)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성노 감독이 이끈 야구 대표팀은 1998방콕AG에 처음으로 13명의 프로선수가 포함된 대표팀을 구성, 막강한 전력으로 6전 전승 금메달에 성공했다. 우승 세리머니가 펼쳐지기 약 5개월 앞선 8월 20일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이정후(20·넥센 히어로즈)다.

20년 후 2018년자카르타-팔렘방AG에 이정후가 당당히 실력으로 대표팀에 선발돼 테이블 세터의 중책을 맡을지 누가 상

상이나 했을까. 선동열 대표팀 감독과 아버지 이종범 대표팀 주루 코치가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함께 뛰고 있을 때다. 선 감독은 “일본에서 정후를 처음 봤다. 작은 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리라 생각도 못 했다”며 웃는다. 이종범 코치는 “(2017년 프로에 입단했을 때) 팀에서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몇 해 더 성장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후는 만 20세 나이로 프로 2년차에 리그 정상급 타자로 성장했다. AG로 리그가 중단될 때까지 타율 0.378로 KBO리그 모든 타자 중에서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홈런타자가 아니지만 OPS는 0.934에 달했다. 좌·우 투수 모두에게 강하고 특정 코스에 약점이 없는 유연한 스윙이 강점이다. 루키 시즌에는 KBO리그 역사를 새로 쓰며 신인왕도 차지했다.

선동열 감독은 26일 대만과 AG야구 B조 첫 경기를 앞두고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이정후가 테이블세터 혹은 리드오프후보다.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야구는 그동안 이승엽(은퇴) 등 중심타자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이용규, 정근우(이상 한화 이글스)로 대표되는 승부욕이 강하고 정교한 타자들이 국제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AG 대표팀은 앞으로 이어질 2020도쿄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WBC)을 위한 세대교체과정에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정후가 새로운 야구대표팀의 돌격대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다. 선 감독은 이정후와 짝을 이룰 테이블세터로 손아섭(롯데 자이언츠)을 꼽았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내가 왜 떴게?

도쿄에선 ‘외모도 금메달’!



김도연

●김도연, 외모는 금메달 : 26일 아시안게임 여자마라톤 결승선에서 감동의 포옹을 보여준 최경선과 김도연, 최경선(제천시청)이 4위, 김도연(K-water)이 6위를 해 비록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혹독한 훈련과 현재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여주한 두 사람에게 국민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 포옹장면 외에 눈길을 끈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김도연은 경기에 앞서 인스타그램에 “다녀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마라톤 요정”이란 별명답게 청순하면서도 빛나는 외모가 돋보인다. 미모는 그녀가 금메달이었습디다. 도쿄올림픽에선 진짜 메달을 기대할게요.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이케이

●이케이, 학교수제 : 아시안게임 수영종목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일본의 수영천재 이케이 리카코. 출전한 8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땀다. 2000년생이니 올해 18세. 여자선수로는 아시안게임 단일 대회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다. 목이 축쳐질 정도로 메달을 잔뜩 따고 일본으로 돌아간 수영여왕에게 떨어진 금선수는 C-F활영도, 언론인터뷰도, 차기대회 훈련도 아닌 등교준비란다. 9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이케이에는 “숙제는 다 했다”며 좋아했다니 정말 대단한 소녀가 아닐 수 없다. 하긴 우리 할머니들도 낭랑 18세 시절에 큰일들 많이 하셨지.

건배와 간빠이의 우정



표팀(사진). 비록 이란에게 졌지만 아시안게임 출전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땀다는 것은 패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날 눈을 끄는 응원단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 남녀 카바디대표팀이었다. 알고 보니 한국과 일본 카바디 선수들이 돈독한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 교류전을 위해 서로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회와 소주 회식을 자주 했다고 한다. 스포츠정신에는 국경이 없다. 물론 ‘건배’와 ‘간빠이’ 사이에도.

●한일카바디팀, 자갈치시장 : 24일 이란에게 16-24로 패한 한국 남자 카바디대표팀(사진). 비록 이란에게 졌지만 아시안게임 출전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땀다는 것은 패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날 눈을 끄는 응원단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 남녀 카바디대표팀이었다. 알고 보니 한국과 일본 카바디 선수들이 돈독한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 교류전을 위해 서로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회와 소주 회식을 자주 했다고 한다. 스포츠정신에는 국경이 없다. 물론 ‘건배’와 ‘간빠이’ 사이에도.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선동열호 수호신’ 정우람 “오직 컨트롤로 승부”

“공인구? 다소 가볍다는 느낌 공에 맞게 던지며 변화 줄 것”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 야구대표팀의 수호신은 정우람(33·한화 이글스)이다. 볼 끝의 회전력을 앞세운 지구와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서클체인지입, 그리고 정교한 컨트롤은 정우람의 장점이다.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의 유형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가 가진 장점들을 하나로 모으면 단순히 ‘빠른 공’ 이상의 위력이 나온다. 볼 끝이 워낙 좋아 타자들이 체감하는 구속은 시속 150km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정우람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술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위력이 떨어질 만하면 하체의 중심이동에 변화를 주는 등

연구를 쉬지 않은 덕분에 볼 끝의 위력도 살아났다. 이번 AG에서도 또 하나의 변화와 맞닥뜨려야 한다. 바로 새 공인구다. AG 공인구는 대만 브릿사의 ‘BR-100’이다. 손톱 길이 1mm 차이에도 민감한 투수 입장에서 새 공인구는 큰 틀의 변화다. 특히 손에 ‘걸리는’ 느낌이 중요한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투수라면 더 그렇다. 정우람은 “훈련 첫날 불편피장을 했는데, 공이 다소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 공인구에 맞게 던지면서 변화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정우람의 각오는 단 하나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서 게 가장 중요하다.” 공인구 등의 변수와 관계없이 자신의

“좋은 공”을 가장 정확하게 던지겠다는 의지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마운드에 올라 타자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컨트롤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포수가 원하는 코스에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컨트롤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계 호흡을 맞추는 포수 양의지(두산 베어스)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의 말마다 마디에 자신감이 느껴졌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공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 투수들이 베테랑인데다 워낙 잘 던진다. 최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돕겠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야구 대표팀의 ‘클로저’는 정우람이다. 그는 이번 대표팀 최고참으로 여러 모로 어깨가 무겁다. 스포츠동아 DB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사술(왼쪽)과 김자인이 26일 팔렘방 자카르타 스포츠시티의 월 클라이밍 센터에서 열린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여자 콤바인 결선에서 힘차게 벽을 오르고 있다. 사술은 은메달, 김자인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AP뉴시스



# ‘암벽 여전사’ 사술의 은빛 클라이밍

일본 노구치와 동물 끝에 은메달 ‘암벽 여제’ 김자인도 동메달 투혼

여자 콤바인에서 각각 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술은 26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르타 스포츠시티의 월 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종목 결선에서 스피드 1위, 리드 3위, 볼더링 4위를 기록해 종합점수 12점으로 2위가 됐다.

사술(24·노스페이스 클라이밍)과 김자인(30·디스커버리 ICN)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 스포츠클라이밍

사술은 1위 노구치 아키요(일본)와 종합점수 동률이 됐지만 세부종목 성적에서 밀려 아쉽게 시상대 꼭대기에 서지 못했다.

이번에서 AG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은 스피드~볼더링~리드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15m 높이 인공 암벽을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스피드 ▲주요 세부 과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볼더링 ▲동일한 시간

내 최대한 높이 암벽을 타는 것이 리드다. 이렇게 진행하는 3종목 순위를 곱해 순위를 가리며 숫자가 적을수록 우승권에 가까워진다.

노구치가 스피드 1위, 리드 2위, 볼더링 6위를 찍은 가운데, 세계 최정상 실력을 자랑해온 ‘암벽 여제’ 김자인은 리드 1위를 차지했으나 볼더링 3위, 스피드 5위로 전체 3위로 경기를 마쳤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